



회원사 소식

☐ 롯데제과, 올해부터 현금결제율 100%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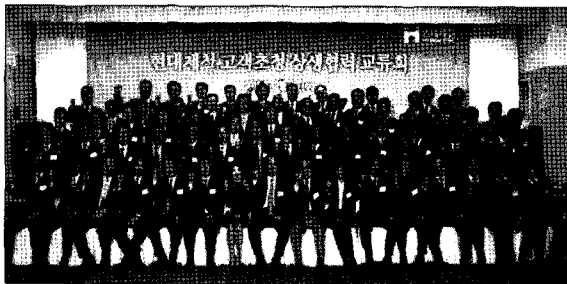
롯데제과가 올해 1월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100%로 높이는 등 동반성장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예탁해 협력업체가 2%p 가량 대출금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롯데그룹 차원에서 발표된 상생협력 방안에 적극 부응하면서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직속으로 동반성장 추진사무국을 신설하고, 대표이사가 협력업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 협력업체 기술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연간 3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 현대제철, 고객초청 상생협력 교류회 개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박승하 부회장을 비롯한 영업본부 주요 임직원들과 우수 고객사 97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고객초청 상생협력 교류회'를 개최하고 판매 우수업체에 대한 우수고객 포상 등을 실시했다.

박승하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대제철이 세계적인 철강업체로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고객사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으로 이뤄낸 결과인 동시에, 고객사 여러분께도 새로운 미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1년도 고객사와 함께 협력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상생에 바탕을 둔 소통 강화와 기술영업 확대, 신수요 창출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향후 고객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동반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영업의 확대와 지원을 통해 고객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新)수요 및 신(新)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롯데정보통신, 실질적인 상생협력 위해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 신설

롯데정보통신(주)은 파트너사와 상생협력을 넘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은 대표이사 직속체제로 협력분과, 정책분과, 성장분과로 구성되어 1국 3분과로 운영된다. △ 협력분과는 파트너사 계약 체결 및 운용 가이드라인 준수 등 파트너사 지원 강화 총괄 △ 정책분과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 △ 성장분과는 파트너사와 공동연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모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롯데정보통신은 기존에 6대 상생협력 실천 방안으로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수평적 동반자로서의 상호 유대감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 파트너사의 전문 역량 확보를 위한 온·오프 교육 지원 △ 파트너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한 결제방식 개선 △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기회 발굴 △ 해외시장 공동 진출 모색 등을 추진해 왔다.

롯데정보통신 오경수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은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2·3차 파트너사에도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동반성장 추진 사무국을 통해 파트너사의 기술력 제고, 경쟁력 확보 마련을 위한 구체적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포스코건설,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단 가동



포스코건설은 최근 동반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동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임원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지원단은 1·2차 협력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1:1로 매칭해 경영·전문기술·법률·세무·인사노무 등 전문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체험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스코건설 1차 협력업체인 강종현 태주공업 대표는 "민고 의지 할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거 같다"면서 "동반성장지원단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으로 현재 재무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향후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과의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금융 지원, 기술협력,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 오고 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회원사 소식



☐ 포스코,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 'AA' 3회 연속 획득

포스코건설·포스코강판 'AA' · 삼성P&A·포스메이트 'A' 등급 획득



포스코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에서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AA등급을 3회 연속 획득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강판 AA, 삼성P&A A, 포스메이트 A 등 4개사도 이번 CP 등급평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201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2006년,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A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에 있어서 국내 최고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CP(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는 올해로 5년째이지만 인증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포스코는 1회와 3회에서 모두 AA등급을 받았고 2년이 지난 올해에도 AA등급을 받음으로써 2012년까지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02년부터 CP를 도입한 포스코는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운영, 자율준수편람 배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감독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등 공정거래 기업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준양 회장도 윤리규범 서약식, 운영회의, 사내 매체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윤리규범 선포 7주년에 즈음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그리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포스코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법규 위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지난 3년간 시스템을 통한 자율점검 건수만 2,000여 건을 웃돌 만큼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 편람과 e-북, 집합교육과 e-러닝으로 세분화된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학습동아리 운영과 사내외 전문교육 확대, 간담회 개최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문화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현대로템, 협력업체와 ‘함께 세계로’ 도약 선언

협력업체 7개사 대표 및 현대로템 임직원 약 100여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선언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목별로 협력업체를 정예화하고 품질과 기술전문위원의 협력업체 현장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대금 지불 횟수도 월 3회로 늘리는 등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11월 12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국내 협력업체 7개사 대표 70여 명을 초청해 가진 '2010년

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철도차량 및 지상무기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협력업체와 함께 공유하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현대로템 측에서는 이민호 사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민호 사장은 환영사에서 "현대로템과 협력업체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격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는다면 진정한 상생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현대로템은 현재 기술교육원을 통한 협력업체 기술교육 무상 지원, 1등급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동반성장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협력업체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월 2회로 되어있는 납품대금 지급횟수를 3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선금금과 원자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민호 사장은 지난 3일 배관단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하나글로벌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위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회원사 소식

□ 신세계, 협력사 동반성장 '5대 핵심과제' 발표

현금결제 관계사 추가 확대·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신세계그룹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5가지 핵심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11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협력회사 CEO 초청 동반성장간담회를 열고 신세계 전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신 동반성장 5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 자금 지원 확대 △ 경영역량 강화 지원 △ 전담조직 운영 및 이행 관리 △ 성과 공유 및 확산 △ 협력회사 존중경영 강화 등 5가지 핵심과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특히, 협력사들이 자금 지원 등 유동성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감안해 현금결제 관계사를 추가 확대하고 신세계 신용도를 적용한 새로운 금융지원 시스템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중소기업 상품대금 현금결제를 내년부터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널 등으로 추가 확대해 2011년에는 연간 기준 총 11조 400억 원 규모로 현금결제를 확대한다.

또한 '신세계 신용도'와 동일한 금리로 대출 받아 협력사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상생 플러스론'을 백화점부문 등으로 추가 확대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 운용자금 지원도 네트워크론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을 합해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세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각 사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 대행과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이마트 부문은 협력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기계약과 거래볼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운영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협력사가 만족하고 공감할 만한 동반성장을 이뤄내야 신세계가 추구하는 고객가치 극대화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2004년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협력사 상생경영을 이번 신(新) 동반성장 5대 핵심과제로 더욱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간담회에는 게스홀딩스코리아, 한일전기, 리빙탑스, 대가식품 등 협력사 CEO 300여 명과 정용진 부회장, 백화점부문 박건현 대표, 이마트 부문 최병렬 대표, 신세계푸드 정일채 대표 등 신세계 주요 경영진 20여명이 참석했다.

▣ 동국제강, 하나은행과 '상생패키지론' 협약 체결

협력기업에 대한 간접금융 지원과 현금성 지급률 개선



동국제강과 하나은행은 지난 11월 18일 여의도 하나대투B 빌딩에서 김영철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하나은행 기업금융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제강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동국제강은 협력기업에 대한 간접금융 지원과 현금성 지급률 개선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1·2차 협력기업을 비롯해 이하 협력기업들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은행 상생패키지론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상생패키지론은 원청기업인 대기업의 신용에 기반을 두어 1차 협력기업의 납품 전·후 금융 지원과 2차 이하 협력기업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기업간 전자결제 상품이다.

동국제강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를 활용해 협력기업을 지원한다.

1차 협력기업은 하나은행의 상생패키지론 결제제도를 이용해 2차 협력기업 대금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의 0.15~0.5%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은 하위 협력기업 배서양도하거나 대기업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저렴한 금리로 할인이 가능하며, 상환청구권과 미결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안전하게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약정 및 대금결제 업무가 가능하며, 하나은행을 주축으로,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뱅킹 등과 함께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동국제강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계기로 중소기업과의 금융부문에서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대중소기업협력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장비·부품 국산화, 동반 해외진출, 우수협력사 재원 지원 등 높이 평가 받아



LG디스플레이가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7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7년 상생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아낌없이 협력회사에 전파해 총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월드 No.1 협력회사를 18개사로 육성했고, 부품 협력사와 상생활동에서 장비 협력사와의 상생영역을 확대해 2000

년대 초반 15%에 지나지 않던 LCD 장비 국산화율을 현재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 성과 등의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철학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에게 맹목적인 금전 지원을 하기보다는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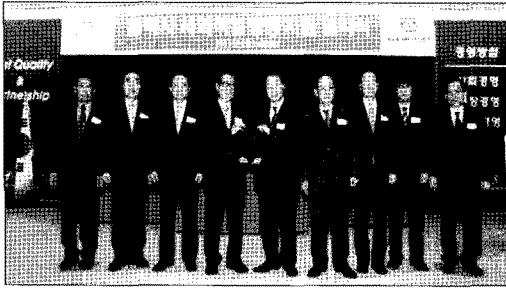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상생 스킬(Skill) 수직 전개를 통한 협력회사 근본적 경쟁력 확보 지원 △ 협력회사와 자사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아이디어 드림(Idea Dream)팀 운영을 통한 상생과제 발굴 및 실행 △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지원 △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시스템화 △ 전·후방 핵심 협력회사의 자금 지원 및 직접 투자 △ 중국과 폴란드 지역의 동반 진출 지원 △ 업계 최초로 상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생프로그램 활동의 결과, LG디스플레이 주요 협력회사들의 2009년 매출은 2007년 대비 73% 증가했고, 생산성과 품질도 크게 향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날 LG디스플레이를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구매센터장 이한상 상무는 "LG디스플레이는 확보된 상생기반을 바탕으로 2010년 상생도약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개발상생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협력사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해 2011년 No.1 협력업체를 30개사까지 육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사회책임경영 지원 협약 체결

협력사 사회공헌활동 재래시장상품권 등 지원...지회별 봉사활동 진행



현대·기아자동차는 12월 14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현대·기아차 구매총괄본부장과 현대·기아차 협력회 회장 등 현대·기아차 임직원 및 협력회 회원사 임직원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와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이번 사회책

임경영 협약 체결은 현대·기아차가 협력사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기아차는 협력회에 재래시장 상품권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회는 19개 지역 분회별로 △ 사회복지시설 기부 및 봉사활동 △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 방문 △ 따뜻한 명절 보내기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현대·기아차와 협력사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와 협력회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며, 공동의 사회책임헌장을 채택하고 각 협력회 회원사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투명한 사회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협력회 회원사의 사회책임경영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원사 소식

▣ NHN-안철수연구소, 상생협력 MOU 체결



NHN과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12월 2일 분당에 위치한 NHN 사옥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안철수연구소와 NHN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보안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양사의 전문성과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상생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축을 흔드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이때, 국내 대표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NHN의 김상헌 대표도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NHN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보유한 안철수연구소와 손잡음으로써 NHN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백화점, '소비자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롯데백화점이 지난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 시상식은 매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개인 및 기업을 추천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9년 6월 백화점 업계 최초로 공정위로부터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이후, 소비자 불만의 효과적인 예방 및 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7개 협력회사와 함께 'CCMS 합동 도입 협약'을 체결, 고객 불만 처리기반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CCMS 도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CCMS 도입을 원하는 협력회사는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인증 평가비용 및 노하우를 지원받는 한편, CCMS 인증을 획득한 후에는 정기 MD 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롯데백화점 CCMS 자율관리자인 이재현 영업본부장은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백화점 업계에서 고객 존중 문화 확산 및 소비자 문제 해결능력 제고는 영원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더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두산인프라코어,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 지원 확대

협력업체 16개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2월 2일, 인천시 하버파크 호텔에서 1·2차 협력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협력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선포식'을 열었다.

이 선포식에는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 20억 원 이상이고, 평가등급이 우수하면서 CP 도입을 희망한 16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로써 CP를 도입한 협력업체 수는 26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CP 도입 협력업체에게 관련 법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CP를 도입함으로써 두산인프라코어는 1·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감소하고 해외 진출시 국제기준 준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산은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2·3차 협력업체까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탄탄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6
37	37
38	38
39	39
40	40
41	41
42	42
43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49	49
50	50
51	51
52	52
53	53
54	54
55	55
56	56
57	57
58	58
59	59
60	60
61	61
62	62
63	63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1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81	81
82	82
83	83
84	84
85	85
86	86
87	87
88	88
89	89
90	90
91	91
92	92
93	93
94	94
95	95
96	96
97	97
98	98
99	99
100	100

▣ SK텔레콤,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협력업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핵심 서비스 API 개방 등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 인정받아



SK텔레콤이 12월 6일 열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주최의 '2010 동반성장주간' 개막식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한 모범 기업으로 선정,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은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SK텔레콤은 특히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동반성장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2003년 통신업계 최초로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립한 뒤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SK텔레콤은, 특히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Biz Partner Ideation Program을 통해 협력업체가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T이카데미를 통해 약 3,000여 명의 개발자들에게 양질의 앱 비즈니스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또한 'T API센터'를 개설하고 LBS(T맵/위치측위), 메세징(SMS/MMS) 등 SK텔레콤 핵심 서비스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기술)를 개방해 협력업체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 대표로 수상한 조기행 GMS CIC 사장은 "SK텔레콤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창조적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5년도에 상생경영 실천 기업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회의'에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 대표로 참석해 동반성장 전략 및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등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 응진코웨이, 100억원 상생펀드 조성



생활환경기업 응진코웨이는 지난 12월 17일 서울 중구 순화동 본사에서 홍준기 응진코웨이 대표와 유상정 기업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상생협력펀드 조인식을 가졌다.

응진코웨이는 40억 원을 무이자로 출자해 기업은행과 총 100억 원의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응진코웨이 1차 협력사 100여 곳에 기존 은행대출 대비 최고 2.32% 감면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한 대출현황을 모니터링해 2·3차 협력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홍준기 응진코웨이 대표는 "상생펀드와는 별도로 협력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모기업과 협력사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응진코웨이의 기업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LG전자 1차 협력사, 어음결제 사라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4개 1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지난 12월 2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자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열고, 2013년까지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를 100% 현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340여 개와 LG전자의 600여 개의 1차 협력사들은 올해부터 1차로 60일 이상의 어음을 없애고, 2012년에는 60일 미만의 어음까지 퇴출시킨 뒤, 2013년부터는 가능한 한 현금으로만 결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양사 1차 협력업체의 절반씩만 100% 현금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5조 6,000억 원 규모의 어음이 현금 결제로 바뀌고, 2차 하도급 업체 2,600여 개 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해 우수 기업들에 상생협력 자금 지원과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1차 협력사와의 서면계약문화 정착, 합리적 대가 산정,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힘쓰면서, 1차 협력사는 품질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원가 절감을 추진해 전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사 소식

□ 풀무원홀딩스 계열 3개사, CP 우수등급 획득

풀무원홀딩스 계열 3개사가 CP(Compliance Program) 운영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풀무원홀딩스는 최근 2010년도 CP 등급평가에서 풀무원식품 'AA', 푸드머스 'AA', 풀무원건강생활 'A'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3개 계열사들은 그동안 CP 편람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를 제·개정해 각 사의 홈페이지에 전자책(e-북)으로 공시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를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퀴즈'와 'CP 뉴스레터'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왔다.

또한 CP 운영현황 평가 및 법 위반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풀무원은 지난 2008년도 CP 등급평가에서도 'A' 등급을 획득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바 있는 풀무원 홀딩스를 포함해 4개사 모두가 우수한 CP 등급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CP 등급평가에서 '인센티브 존'(Incentive Zone)인 A등급 이상을 부여받게 되면 직권조사 면제와 더불어 10~15%의 과징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LG생활건강, 해태음료 인수 완료

(주)LG생활건강은 1월 11일, 국내 3위의 음료업체인 '해태음료'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0월 해태음료의 최대주인인 '아사히맥주'를 비롯한 5개 주주와 지분 100%를 총액 1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등 정해진 모든 절차를 마침에 따라 인수를 완료하게 됐다.

인수 완료 시점의 해태음료 순차입금은 약 1,177억 원으로 당초 추정금액 1,230억 원보다 약 53억 원이 감소했다. LG생활건강 측은 금번 해태음료 인수가 완료에 따라 제품 포트폴리오 및 영업 인프라가 더 강화되고 생산 및 물류가 효율화됨으로써 코카콜라 음료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태음료는 인수된 이후 현재의 코카콜라음료주와 같이 코카콜라 글로벌시스템의 일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기존 해태음료 브랜드의 품질 향상 및 추가적인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기존 코카콜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코카콜라의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

▣ 법무법인 화우의 허선 컨설턴트, 'GCR어워드' 카르텔 전문가 후보로 올라

미국 FTC 출신 김학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영국의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시상하는 '2011 공정거래 분야 어워드' 카르텔분야의 법률전문가 후보로 허선 컨설턴트를 비롯해 5명의 후보가 추천됐다고 밝혔다. 아시아인으로는 허선 컨설턴트가 유일하다.

전 세계 변호사, 정부기관, 경제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GCR 어워드는 GCR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어워드의 시상식은 올해 2월 4일 개최된다.

허선 컨설턴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출신의 김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변호사는 2007년 워싱턴대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메릴랜드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3년 동안 FTC에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제약산업 등의 분야에서 소송과 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 한국경쟁법학회, '2010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공로상 수상

한국경쟁법학회가 '2010 소비자권익증진 경영대상' 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쟁법학회의 주된 성과는 20여 년의 연구를 통해,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진실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개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적인 소비자의 보호라는 개념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가능케 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경쟁법학회는 2006년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비롯해 선불식 할부거래제도의 도입 등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쟁법학회 신현윤 회장은 "이번 소비자권익대상은 그동안 학회의 노력을 다소나마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경쟁법학회는 이 상을 계기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